

16-18세기 아마존 일반어(Língua Geral Amazônica)의 탄생과 확장: 원주민의 말에서 정복의 언어로*

양은미**

단독/한국외국어대학교

Yang, Eun-Mi (2020), "The Birth and Expansion of Língua Geral Amazônica in the 16th-18th Centuries: from Indigenous Oral Language to the Language of Conquest"

ABSTRACT

Língua Geral Amazônica was an official language that functioned for colonization of the Amazon through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t was originated from the Tupi or Tupinambá, an indigenous tribal language, but went through a process of being systematized and detribalized by the Jesuits, which consolidated its position as a standard language of power. In this process, the other indigenous tribes were treated as a single unit called *tapuia*, and later all indigenous people, whether Tupi or Tapuia, were generalized as *Índio Genérico*. Currently, the language which has been called Nheengatu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is still present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maz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kind of communication was intended by the Portuguese colonizers when they adopted the Língua Geral and promoted its use for colonization of the region. For that purpose, I examine the historical process through which the Tupinambá language was transformed from a colloquial indigenous language to a language of conquest until the mid-eighteenth century. The reason for such delimitation is that the language lost its official position as a general language for communication in 1757 when the Marquis of Pombal prohibited its use. The point of departure for this study is the problematic question concerning the modern Nheengatu, which has recently taken o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indigenous peoples' struggles for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058027).

이 논문은 2020년 7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이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Eun-Mi Yang is a HK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paixaojesusem@gmail.com).

decolonization as well as for the restoration of indigenous identity in Brazil. The paradox exists because although it was created based on an indigenous language, it apparently was the language of conquest in the colonial period. Thus, in this study, by focusing on a series of interpretations on the *Língua Geral* and its position attributed by the Portuguese colonizers during this period, I estimate how and toward which direction Nheengatu and indigenous related research should develop in the current context.

Keywords: Amazonian General Language, Nheengatu, Tupi versus Tapuia, Generic Indian, Colonial Brazil / 아마존 일반어, 이엥가투, 투피 대 따뿌이아, 일반 인디오, 식민지 브라질

들어가는 말

브라질 포르투갈어가 지닌 유럽식 포르투갈어와의 차별성은 오늘날에는 하나의 긍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차별성이란 원주민 언어와 아프리카, 아랍 계통의 언어를 흡수하여 매우 다채롭고 역동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으로, 브라질은 이를 자기네 사회가 지닌 포용과 유연함의 대표적 특징으로 자부하기도 한다. 사실 이는 오랜 기간 브라질 지배층이 허용하고 기획해 온 포르투갈어와 국내에 존재하는 타 언어들 간의 관계이다. 즉, 브라질의 역사 속에 존재해 왔던 그 다양한 언어들에 브라질의 유일한 공식 언어 포르투갈어 형성에 기여한 재료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19세기까지 아마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주요 소통 언어로 쓰였던 원주민들의 언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리용 달리그나 호드리게스(Aryon Dall'Igna Rodrigues)와 주제 히바마르 베사 프레이리(José Ribamar Bessa Freire)는 브라질의 원주민과 그 언어 연구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체계화에 매진해 왔다. 호드리게스는 1950년대부터 브라질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언어들

1 브라질의 인류학자 다르시 히베이루는 당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브라질리아대학교(UnB, 1962)에 언어학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함께 운영할 조력자로 브라질 사람으로는 최초로 함부르크대학교에서 이제 갓 언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호드리게스를 초청하였다. 호드리게스의 분류에 따르면 브라질 원주민 언어는 크게 투피(Tupi), 마끄로-제(Macro-Jê), 아라와(Arawak) 어족으로 나뉘며, 그중 대부분이 투피와 마끄로-제 어족에 속한다. 그는 언어의 역사학적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구축에 공을 들였다. 원주민 언어들에 대한 기원과 상호관련성 연구에서 당시로서는 다소 근거가 취약했던 접근 방식을 택해 초반에는 브라질 사회의 호응을 크게 얻어내지는 못했다. 아직까지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인 선사 시대 투피 계통 언어들에 대한 연구도 그중 하나이다. 꾸준한

70년 가까이 연구한 브라질 언어학의 선구자이다. 그의 기여 중 하나는 브라질의 원주민 언어 분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간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1986년 발행된 『브라질의 언어들: 원주민 언어들에 대한 지식을 위하여 *Línguas Brasileiras: para o conhecimento das línguas indígenas*』는 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브라질에 존재하는 원주민 언어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면서 접근하기 쉽게 풀어냄으로써 브라질 사회에 원주민과 그 언어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였다(Rodrigues 1986). 그의 분류체계는 후세대 원주민 연구자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주로 197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프레이리²는 언어학자이자 사학자로서 원주민 언어의 사회적 역사에 집중한다. 그는 브라질이 독립 이후 포르투갈과의 관계 정립에서 거리두기와 차별점 부각을 중대한 과제로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문학과 언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노력, 특히 언어를 정체성 건설의 상징적 요소로 강조해 왔음을 지적한다(Freire 2003, 38-39). 이어 그는 20세기 말까지 생산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원주민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브라질 포르투갈어가 원주민 언어들에 진 어휘상의 빛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 같은 한계는 그가 정리한 것처럼 그 직전, 즉 독립 직후의 시기 반세기 동안 브라질에서 행해진 약 24개의 연구와 선집들이 모두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언어를 부각시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이다(Freire 2003, 39, 41). 18세기 아마존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아마존 일반어(Língua Geral Amazônica)가 정점을 찍고 뿔바우 개혁으로 사용이 금지된 후 현재 네그루강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좋은 말’을 뜻하는 의미의 ‘이엥가투어’(nheengatu)³라

연구와 활발한 석사 및 박사 논문 지도로 오늘날 원주민과 그 언어 관련 연구의 지평이 확대 및 심화되었다. 호드리게스가 배출한 루이스 보르제스, 아나 수엘리 까브라(Ana Suelly Arruda Câmara Cabral), 안데르비우 마르시우 마르칭스(Andrébio Márcio Silva Martins)와 같은 연구자들은 호드리게스의 연구를 재조명하는 한편 그것을 바탕으로 브라질 원주민 언어 연구를 이어 오고 있다(Cabral et al. 2014).

- 2 프레이리는 1970년대 브라질 및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언어들, 아마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언어의 사회적 역사라는 접근틀 안에서 주로 구전문학, 기원, 유산, 역사적 원천, 원주민 역사와 언어, 아마존을 주제로 한 연구에 주력해 왔다.
- 3 이엥가투어에 대한 최초의 문서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로 문법, 어휘, 종교적인 기록들과 서사적인 기록물들이다(Borges 1991). 19세기 브라질의 정치인이자 민속학자였던 꼬우투 지 마갈랑이스(Couto de Magalhães 1876)는 ‘좋은 언어’(língua boa)라는 의미의 이 이름을 처음으로 문학계에 소개한 바 있다(Rodrigues 1996, 10). 사실 아마존 일반어를 지칭하는 이름은 매우 다양하다. *nheengatu*, *abanheengatu*, *tupi*, *tupi vivo*, *tupi moderno*, *tupi do norte*, *língua geral brasileira*, *língua geral brasiliana*, *guarani*, *tupi-guarani* 등 상이한 역사적 순간마다, 또 공간에 따라 명확하거나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수많은

는 이름으로 재조명되기까지의 간극은 그 언어가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 깊지 않다. 그러나 과거 이엥가투어를 구사하던 이들의 후손과 새로운 사용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과거 아마존 일반어의 위상과 의미는 매우 희미하다. 또한 바후스(Maria Cândida Barros)와 프레이리의 말처럼 그 간극은 원주민들에 대한 “주변적인 관찰”, 따라서 식민체제하의 언어학적 문제에 대한 분석보다는 편견에 훨씬 더 치우친 연구들이 메우고 있기에 한탄스럽다(Barros 1982, 1; Freire 2003, 40-41). 포르투갈어 어휘를 풍요롭게 해 준 브라질 원주민은 현재 브라질 전체 인구의 0.5%에도 못 미치는 극소수 그룹이다. 그들은 브라질 사회에서 시민으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불완전한 시민으로 존재해 왔기에, 자기들을 향한 이 같은 주변부적인 관찰 양상에 유의미한 파장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지리적 분포와 상관없이 브라질 사람들의 사고와 그 언어 형성에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가 끼쳐 온 영향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브라질의 사학자이자 문학비평가 아우프레두 보지(Alfredo Bosi)는 한 인터뷰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원주민은 우리 사회 까보끌루들의 말 속에, 마리우 앙드라지나 주제 알랭카르와 같이 우리 언어의 빼놓을 수 없는 작가들의 상상 속에서 흡사 땅 속에 묻힌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야생의, 원시적인 무의식이다(Angelo 1998).

호드리게스와 프레이리를 비롯해 20세기 중·후반에 접어들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브라질 원주민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제 브라질 사회가 원주민을 그저 무의식의 상태로 놓아두는 데 안주하려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호드리게스와 프레이리가 대표하듯 1960-1970년대부터는 사회언어학의 발달로 언어의 역사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학계에서 점차 견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참된 인류학에 대한, 브라질에서는 에두아르두 비베이루스 지 까스뜨루(Eduardo Viveiros de Castro)로 대표되는 현대 인류학자들의 각성과 고민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마

이름들이 아마존 일반어에 붙는다(Freire 2003, 84). 본고에서는 아마존 지역 일반어를 칭함에 있어 학계에서 승인되고 통용되는 ‘아마존 일반어’와 ‘이엥가투어’를 주로 사용하되, 일반어로서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언어 자체의 수정과 확장 범위에 따라 ‘뚜페이’ 또는 ‘뚜페낭바이어’를 함께 사용한다.

존 원주민 세계의 연구에 있어,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한 그의 고민과 성찰은 보다 나은 세계, 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고찰되고 건설되어야 할 세계와 그것에 기여해야 할 인류학의 독창성에 대한 것이다(De Castro 2015). 아울러 브라질 사회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통해 원주민과 아마존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나아가 그것이 브라질 전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읽어내려는 시도에서 학계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제기와 재해석의 노력은 국제적 주목을 먼저 받으며 브라질 사회에도 전환의 물꼬를 트려는 듯 보인다. 학계의 각성과 더불어 원주민과 아마존 관련 사회활동단체 및 개인들의 꾸준한 활동은 브라질 사회의 원주민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브라질 원주민을 오로지 힘없는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헤게모니 지식 구상에 있어 주요한 반추의 대상이자 주체의 자리에 위치시킨 것이다. 그전까지 그들에게 붙은 수식어는 무엇이었는가. 식민지의 부끄러운 잔재, 근대화, 현대화된 브라질 사회에서는 기껏해야 제한된 지역과 생태 다양성을 자랑하는 자연 자원에 대한 지식의(대개 자원 자체가 아니라) 주인, 예술과 전통 등과 같이 제한된 분야의 주인, 오로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에 맞서는 이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해꾼 등이다. 학문과 정책에 있어서 그들은 주변적인 연구 관찰, 일방적 정책 집행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1987년부터 ISA(사회환경연구소, Instituto Socioambiental)가 발간해 온 방대한 분량의 브라질 원주민 부족 현황 보고서 『브라질의 원주민 부족들 Povos Indígenas no Brasil』은 원주민 공동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는 물론 그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의 스펙트럼 구축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10년 IBGE(브라질지리통계국)가 실시한 인구총조사에서는 소속 부족부터 거주지, 사용 언어, 교육 및 보건 실태 등을 포함해 브라질 원주민에 대한 총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 조사가 시사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이나 무엇보다 브라질 사회에 원주민이 언어·문화적 측면에서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가진 다양한 부족들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 정확해진 통계를 통해 여타 브라질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으로 원주민을 인식하는 기쁨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과거 브라질 사회에서 원주민과 까보플루가 담당해 온 역할의 옹호자였던 다르시 히베이루(Darcy Ribeiro)조차도

1970년대까지는 원주민의 감소와 사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Ribeiro 1986). 그러나 21세기 원주민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원주민 ‘문제’ 또한 여전히 브라질 사회에 건재하다. 역설적이게도 꾸준히, 그리고 곳곳하게 브라질 사회의 불편한 진실로 버텨 왔던 원주민 문제(problem)는 이제, 적어도 한동안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무엇보다 원주민 자신들이— 팽팽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문제, 즉 현안(question)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마존 일반어의 마지막 보루라 칭해지는 브라질 북부 네그루강 유역에 위치한 아마조나스주 서용가브리에우다까쇼에이라(São Gabriel da Cachoeira)⁴에서 2002년 이엥가뚜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된 것은 고무적인 사건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002년 11월 22일자 시 입법 145조의⁵ 승인으로 이루어진 이 결실은 이 지역의 원주민 교사들이 1998년 최초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22개 부족을 아우르는 660개의 원주민 단체로 이루어진 네그루강 Foirn(원주민조직연합회)과 Ipol(언어정책연구발전연구소)이 함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루어졌다(Brianezi 2006). 문제는 이 언어가 가진 두 개의 속성, 즉 비록 뚜뻬 체계의 원주민 언어에서 출발했지만 본질상 식민시대 유럽인의 아마존 통치의 도구였다는 상처된 속성으로 인해 그 현대적 부활을 단순히 낭만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출발점은 식민시대 아마존 지역의 통치 도구로 쓰였던 이엥가뚜어가 원주민의 정체성 회복 내지는 브라질의 탈식민 노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있다. 다시 말해, 뚜뻬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나 정복의 언어이기도 했던 이엥가뚜어의 복원을 현대 브라질 사회라는 맥락에 놓인 원주민들의 정체성 건설에서 상징적 절차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지 않은가? 브라질 내 원주민 언어의 수가 무려 274개에 달하지만

4 서용가브리에우다까쇼에이라 시는 브라질에서 시 전체 인구 대비 원주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Foirn에 따르면 시 내 원주민 언어의 수는 18개이며, 시가 위치한 네그루강 상류 지역은 브라질에서 원주민 부족 및 언어 다양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다(Foirn 2020).

5 원주민 의원 까미쿠 바니와가 작성한 이 입법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된 것은 1998년 원주민 교사협의회에 의해 문제 제기였으며, 1987년에 창설된 Foirn은 이를 시작으로 Ipol과 함께 법안의 통과를 위해 원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입법이 성사되었다(Brianezi 2006).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포르투갈어와 나란히 세 개의 원주민 언어—뚜까누(tucano), 이엥가뚜어, 바니우아(baniwa)—가 시의 공식언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 외의 언어가 공식언어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였고, 이후 타 도시들에서도 원주민어를 비롯해 다양한 체계의 언어들에 도시 내 공식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IBGE 2010) 각 부족어 사용자의 수와 사용 범위를 볼 때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 어쩌면 그런 현실 앞에 식민시대부터 강력한 헤게모니 언어로 부과되어 온 포르투갈어 중심의 단일언어 체계를 반박하기 위한, 개연성이 결여된 선택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남는다.

그렇지 않다면, 즉 현재 까쇼에이라 지역을 중심으로 이엥가뚜어가 갖게 된 원주민 정체성 확립의 본질적 도구로서의 의미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이엥가뚜어는 무엇을 표상하며, 그것은 식민시대와 제국시대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어느 단계쯤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 식민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엥가뚜어 또는 아마존 일반어의 지위와 표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엥가뚜어 체제하에서 원주민들은 누구였는가? 동시대에 공존하기도 하며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 이 언어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은 과연 그 모양과 속성의 변질과 연관한가? 이는 현대 이엥가뚜어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누가 되고자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다.

본 논문은 현재 브라질 땅에 거주했던 16세기 원주민과 포르투갈인의 조우 이후 뚜뻬어 계통의 언어가 아마존 지역 소통의 도구로 채택되고 18세기까지 이 지역의 초부족적 일반어로 변모해 간 과정을 살펴본다. 루이스 보르제스(Luis C. Borges)는 그의 이엥가뚜어 연구에서 이엥가뚜어라는 현상이 본질적으로 포르투갈인들의 아마존 점령 과정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고 전제한다(Borges 1996). 따라서 이엥가뚜어가 무엇이었고 지와 거기서 파생되는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왕실과 예수회로 대표되는 정복자들에 의한 브라질 식민화 과정에서 이엥가뚜어를 둘러싼 정책과 그것의 시기에 따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일부분 가능하다. 본고의 목적은 식민시대 포르투갈이 아마존 지역의 식민화를 위해 아마존 일반어에 부여한 소통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원주민 정체성 구현의 도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엥가뚜어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과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역사서들은 현대 이엥가뚜어가 재조명되기 전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아마존 일반어의 생성과 쇠퇴의 역사를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눈다. 정복자들에 의한 뚜뻬어 사용 장려기, 뽉바우 재상의 정치·행정 개혁에 따른 포르투갈어 단일언어화와 아마존 일반어 사용의 금지기(1757-), 18세기부터 포르투갈 지배와 원주민성 해체에 저항해 원주민과 까보플루를 비롯한

비지배 집단이 일으킨 까바나 혁명(혹은 까바나쟁, 1834-1840) 직후까지의 시기가 그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범위는 그중 앞의 두 시기이다. 2장에서는 16세기 포르투갈이 직면한 아마존의 언어 다양성 현실과 그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뚜뻬어가 아마존의 초기 소통 언어로 선택되고 비 뚜뻬족이 이를 매개로 뚜뻬화되는 과정을 다룬다. 이어 4장에서는 아마존 지역에서 예수회에 의해 뚜뻬어가 체계적 수정을 거치면서 부족성이 해체되며 명실공히 아마존의 일반어로 사용이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본다.⁶

16세기 아마존의 언어 다양성과 포르투갈 식민 통치자의 해석

식민시대와 제국시대에 걸쳐 브라질에는 2개의 일반어(*língua geral*)⁷가 있었다. 하나는 당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포르투갈의 두 식민지였던 남동부의 브라질 식민주(*Estado [Colonial] do Brasil*)에서 사용되던 제 계통의 상파울

6 앞서 밝힌 본고의 출발점이 되었던 ‘식민시대 아마존 일반어와 21세기 이엥가뚜어와의 접점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시기 중 마지막 시기 뿡바우 수상 주도의 개혁하에 행해진 식민지의 포르투갈(어)화 정책과 일반어 사용의 금지 이후의 시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 그 후 이엥가뚜어는 중심부 언어로서의 지위 상실과 저항의 언어로의 존속이라는 2가지 모습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아마존 일반어의 탄생과 확장 과정, 뿡바우 개혁 이후 이엥가뚜어의 2가지 지위 혹은 의미, 즉 한편으로는 국가 역사에서 소멸되어야 할 언어이자, 동시에 원주민을 포함한 비지배계층의 언어로 전개되는 양상 각각에 대해 중대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 이엥가뚜어와 맞닿아 있는 마지막 시기의 분석은 이엥가뚜어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사회 원주민 자신과 브라질 사회 전반의 각성의 폭과 깊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래 본고에 포함하려고 했던 뿡바우 개혁부터 아마존 일반어의 전개에 관하여는 후속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7 ‘*língua geral*’의 한국어 표현은 ‘공통(언)어’와 ‘일반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였다. 필자가 이엥가뚜어에 대해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2014년의 집필에서는 ‘공통언어’를 택하였으나(Yang 2014, 본고에서는 ‘*geral*’(영어로 *general*)의 통상적인 의미에 무게를 두고 ‘일반어’로 통일하였다. 이는 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1호에 게재된 임두빈 교수의 논문 ‘브라질의 언어현실과 언어사회적 편견에 관한 연구’에서의 번역을 따른 것으로, 여기서 그는 ‘공통어’ 혹은 ‘소통어’의 개념을 ‘*língua franca*’가 이미 선점한 것을 고려하여 차별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Im 2008). 나아가 본고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고 필자가 이미 ‘일반 인디오’로 번역한 ‘*índios genérico*’에서의 ‘*genérico*’와 ‘*língua geral*’의 ‘*geral*’은 관련 포르투갈어 문헌에서 아마존 사회 원주민들과 그 언어들의 다양성의 희석이라는 동일한 취지에서 사용되며, *língua geral*을 ‘일반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루 일반어(Língua Geral Paulista, LGP)이고, 또 하나는 북부의 마라녜옹이그러웅빠라 식민주(Estado [Colonial] do Maranhão e Grão-Pará)⁸에서 사용되었던 아마존 일반어(Língua Geral Amazônia, LGA)이다. 그중 후에 이엥가투어라 불리게 된 아마존 일반어는 투뻬어족(tronco tupi), 투뻬-과라니 언어과에 속하는 언어로, 흔히 고대 투뻬어라 칭하는 투뻬낭바어(tupinambá)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아마존 일반어는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18세기에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지대를 중심으로 원주민뿐 아니라 포르투갈에서 온 예수회 선교사와 정복자들에 의해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Mariani 2017).

상기시키자면, 이엥가투어는 당시 해안가에 분포해 있던 원주민들의 다수를 이루던 부족들이 사용하던 투뻬낭바어에서 변형되어 새로운 언어로 재탄생한 언어이다. 왜 굳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을까? 왜 투뻬낭바어가 원래의 상태 그대로 사용될 수 없었을까? 언어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소통이다. 정복자들은 누구와 소통하고자 했는가? 무엇을 위하여 소통하고자 했는가? 그들은 원주민들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포르투갈과 브라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포르투갈이 이 땅에 기거하는 데 ‘문제’로 인식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정복자들이 애초에 목표한 원주민들과의 소통의 범위는 어떠했는가? 서로 밀접히 연관된 이 같은 질문들은 포르투갈의 정복자들이 원주민들을 무엇 혹은 누구로 보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16세기 유럽인들이 아마존에 처음 상륙했을 때 사용되던 언어들은 매우 다양한 언어 줄기에 속했다. 16세기와 아마존강을 탐험한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1541-1542)와 우르수아/ 로뻬 데 아기레(1560-1561)의 기록에서 그들은 원주민 언어들의 방대함과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스페인 예수회 소속으로 1639년 빼드로 떼이세이라 원정대와 함께 아마존강을 건넌던 끄리스또발 데 아구나 신부는 그곳에서 사용되던 언어가 “150개가 넘으며, 모두 서로 다르다”라고 기록했다(Freire 2003, 97-98, 재인용). 로우꼬뜨까(Čestmír

8 1621년 포르투갈 펠리페 2세 집권기에 당시의 포르투갈령 아메리카 북부에 마라녜옹주(Estado do Maranhão)라는 이름으로 생겨났다가 1654년에 그러웅빠라 지역과 병합되어 마라녜옹이그러웅빠라주(Estado do Maranhão e Grão-Pará)로 개명되었다. 1751년에는 그러웅빠라이마라녜옹(Estado do Grão-Pará e Maranhão)으로 변경되고 이어 1772년에 분리되었다. 1774년에 잠시 재통합되었으나 1775년 다시 분리되었으며, 브라질의 독립(1822) 후 1823년에는 브라질 식민 주에 병합되어 그때까지 이원화되었던 포르투갈의 식민지는 독립국 브라질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진 통일체가 되었다. 현재 마라녜옹과 빠라는 2개의 독립된 주이다.

Loukotka)에 의하면 유럽인들과 남아메리카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던 당시 이 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는 약 1,500개에 달했고 그중 약 718개, 혹은 거의 절반이 현재 브라질 아마존에 해당하는 영토에 집중되어 있었다(Loukotka and Wilbert 1968). 호드리게스는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다 신뢰할 만한 문헌을 근거로 동 지역에서의 언어 분포 추정치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브라질이 점령했던 아마존 지역에서 구사하던 언어의 수는 1,273개였고, 그중 495개가 오늘날의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용되었다(Rodrigues 2000, 24-25).⁹

표 1. 16세기 브라질령 아마존의 언어 그룹

어족	그룹 수
Tupi	130
Karib	108
Aruak	83
Pano	34
Tukano	26
Ge	66
고립어 또는 미분류 언어들	271
전체	718

출처: 로우코프카의 연구조사(1968)를 바탕으로 프레이리가 작성한 표(Freire 2003, 45, 재인용)

그 언어들의 줄기는 십수 가지로 뻗어 있으며, 16세기 대서양을 통해 현재의 브라질 지역에 상륙한 유럽인들과 접촉한 최초의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뚜뻤어/뚜뻤낭바어¹⁰ 혹은 뚜뻤과라니어였다. 이는 첫째, 표에서 보는 것처럼

- 9 프레이리는 아마존 지역에서 사용되던 원주민 언어 수가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두고 출처, 추정에 사용된 방법, 아마존의 경계 수립에 사용된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과 함께 무엇이 언어이냐를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개념의 차이에도 기인한다고 설명한다(Freire 2003, 45).
- 10 흔히 뚜뻤어는 여러 문헌에서 실제로는 뚜뻤어족에 속하는 언어들 중 하나인 ‘뚜뻤낭바어’로 대표 기술되기도 하는데, 헤밍 역시 ‘뚜뻤어’와 ‘뚜뻤낭바어’를 혼용하면서 브라질 남부 일부 부족들과 아마존의 남쪽 지류 깊숙이 브라질과 페루 땅에 자리 잡은 뚜피 부족들이 쓰는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파우스투에 따르면 과라니족은 빠라나-빠라과이만 지역과 까나네이아와 현재 브라질 최남단 사이의 해안선을 따라 분포해 있던 부족이다. 뚜뻤과 과라니라는 부족 및 언어의 다양한 분포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문화와 언어의 상호 유사성 때문에 브라질에서는 흔히 뚜뻤과라니라고 칭해진다(Fausto 2006, 37). 뚜뻤낭바어는 이후 뚜뻤어가 일반어화 되는 과정에서 초부족적 성격을 가지게 된 뚜뻤어, 이후 이엥가투어라 명명되게 된 언어와 여전히 부족적 성격을 가진 채 보존된 부족적 성격의 뚜뻤어를 구분하여 후자를 명명하기 위해 생겨난 명칭으로

뚜뻐어 계통의 언어를 구사하는 부족 혹은 언어 그룹의 수가 130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 지리적 분포로 인한 것이었다. 뚜뻐어는 남쪽의 파라과이 평원부터 브라질의 대서양 연안 전역과 아마존강, 그 주요 지류 주변까지 거대한 원호를 그리며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한다(Hemming 2013, 33-36). 흔히 알려진 것은 브라질 ‘해안의 주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안가 및 주요 강 연안을 중심으로 분포한 뚜뻐낭바족과의 접촉으로 인해 뚜뻐낭바어가 포르투갈이 점령한 2개 식민주 내 여러 지역에서 초기 소통어로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Borges 1996, 46).



그림 1. 브라질 주요 원주민 어족과 줄기들의 분포(16세기)

주: 위 지도는 브라질의 현재 국경선 및 주(state) 경계선들 위에 16세기에 존재했던 원주민 언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출처: Pinterest¹¹

언어의 단일화는 식민지 브라질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초반부터 공유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예수회의 역할을 논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1 <https://pin.it/fmpswHe>

과제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 영토에 2개 이상의 언어가 통용될 수 없다는 포르투갈 제국의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었다. 현실적으로도 아마존의 언어 다양성, 그리고 생존과 소통의 어려움을 직시한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자들은 아마존이 이제 ‘하나의 언어가 통용되는 새로운 공동체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숲의 안내자, 노를 짓는 자, 추출자, 식량 생산자, 집과 도로의 건설자, 군사¹²에 이르기까지 아마존의 정복과 식민사회의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부과된 역할은 많고도 중대했다. 또한 원주민은 통역자였다. 먼저는 땅과 숲의 통역자였으며, 다른 부족들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통역자였다 (Freire 2003, 46). 따라서 식민화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원주민과의 소통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식민 통치자들은 문자도 없이 구술적 전통에만 의지하는 원주민의 ‘말’은 언어의 자격이 없으므로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6세기 브라질의 초대 총독 토메 지 소우자(Tomé de Sousa)¹³와 함께 브라질에 들어온 첫 예수회 신부 마노에우 다 노브레가(Manoel da Nóbrega)¹⁴는 포르투갈 국왕에게 보낸 사역 보고 서한에서 원주민 언어의 가진 한계를 같이 토로하였다.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선포하기에는 단어들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해시키려 애쓰고 있으며 어떠한 것들은 우회적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Nóbrega 1988, A3).

기도문들과 주기도문에서 명하신 것들을 그들의 언어로 읊기려 노력해 봤지만, 저에게 그것을 말하는 법을 알려줄 말[다시 말하면, 통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몹시도 야만적이어서 단어들조차 없기 때문입니다(Nóbrega 1988, 73).¹⁵

브라질을 식민화하려는 포르투갈인들에게 원주민은 “손과 발”이라 표현했

-
- 12 식민 통치자들과 주요 관계를 맺었던 투베족과 포섭된 일부 부족들은 포르투갈이 다른 부족들이나 유럽인에 대항한 전투를 벌일 때 주요한 병력이었다.
 - 13 발견 후 거의 방치에 가까웠던 브라질의 관리는 프랑스의 해적 활동 등으로 인해 점차 강화되었고, 1534년 세습 까베타니아 체제(capitania hereditária)가 수립되면서 다른 국면을 맞이하였다. 식민화라고 부를 만한 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1549년 총독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초대 총독으로 파견된 소우자와 예수회 수사들의 입성으로 식민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단일언어 지향성은 점점 뚜렷해지게 된다.
 - 14 1549년 토메 지 소우자와 함께 다섯 명의 예수회 사제들을 이끌고 브라질 바이아에 도착했다.
 - 15 1549-1560년까지 노브레가 신부가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에 보낸 편지를 1988년 상파울루 대학교(USA) 출판부에서 엮어 발행하였다.

던 앙토니우 비에이라(Antônio Vieira) 신부¹⁶의 묘사는 더욱 정교하다. 원주민의 보호와 교화라는 사명을 가졌던 예수회 신부들은 동시에 원주민을 열등한 존재로 보았으며, 예수회는 물론 왕실의 대 원주민 정책은 그것을 전제로 했다. 1653년부터 1661년까지 그레옹빠라이마라너웅주에서 예수회의 수장으로 있었던 그는 아마조나스로 여행하기 전날 밤 마라너웅의 서용루이스(São Luís)에서 했던 “성령의 설교”(Sermão do Espírito Santo)에서 “야만적인”, “알아들을 수 없는”, “어두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비이성적인” 등 셀 수도 없는 형용사를 사용해 원주민들의 말이 소통 언어로서 부적합함을 피력하였다. 그에게 있어 “책도 없고, 선생도 없고, 안내서/자도 없는” 원주민들의 언어는 식민지의 소통 언어로 교육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다(Vieira 2001, 427-429). 특히 포르투갈어나 당시 최고의 교양과 문명의 표상으로 여겨졌던 라틴어에 비교했을 때 원주민 언어의 조잡함과 열등함은 더욱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원주민 언어를 열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비단 정복 초기 아마존뿐 아니라 포르투갈령 아메리카 전체에 팽배해 있었고, 이는 식민시대 내내 계속된다.

그 가운데서도 원주민들의 언어에 대한 “소극적인 찬사”는 있었다(Rosa 2003, 142). 1584년 예수회의 페르너웅 가르징(Fernão Cardim)은 그들의 말을 두고 “쉽고 우아하며, 부드럽고 풍요롭다. 어려움은 다양한 조합을 하는 데 있다.”라고 평했다(Cardim 1980, 101). 예수회 루이스 피게이라(Luís Figueira) 신부¹⁷는 1621년 뚜빠낭바어를 비롯한 원주민 언어들을 다룬 책 『브라질어 문법 기술 *A arte de gramática da língua brasílica*』¹⁸에서 인칭과 동사의 활용면에서 원주민 언어를 그리스어와 비교하였다.

3인칭 단수를 1인칭 복수형 동사로 활용하는 것은 미개해 보인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다. 그토록 기품 있는 그리스어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는데, 복수 중성 명칭들은 흔히 동사의 단수형을 요한다(Figueira 1621).

16 1653년에 아마존에 와 9년 동안 머물렀다.

17 총독 지오구 지 멩동싸 푸르따두(Diogo de Mendonça Furtado)의 요청으로 1621년 마라너웅주에 미션을 세웠다.

18 주석 5)에서도 설명했듯 아마존 일반어는 과거 ‘língua brasílica,’ ‘língua brasiliana’라고도 불렀다. ‘brálico’와 ‘brasiliano’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형용사이자 명사로, 오늘날에는 통상 ‘brasileiro’가 사용된다.

이러한 긍정적 견해들이 식민지 소통 언어의 선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포르투갈 정착민들이 처한 현실이 그들 다수가 주장한 원주민 언어들의 ‘열등함’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 현실이란 포르투갈령 아메리카 내 원주민들 대비 포르투갈 이주자들의 수적 열세였다. 까브라우 원정대가 처음 브라질 땅을 밟은 후 이주해 온 포르투갈 사람들의 수는 약 28만 명이었고, 1581년에서 1640년 사이 매년 평균 5백 명에서 5천 명이 이주해 왔다. 그러나 항해 도중 조난을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적을 수도 있다(Venâncio 2000, 66; Rosa 2003, 138, 재인용). 더욱이 마라녜옹이그러옹빠라 식민주의 경우 언어 및 인구학적 현실로 인해 포르투갈어를 소통 언어로 강제할 수 없었다. 브라질 식민주의와는 달리 마라녜옹이그러옹빠라는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정착 인구가 약 150명으로 매우 미미했다. 그들 대부분은 군인들이었는데 1616년 이 지역에 정착한 프랑스인들을 내쫓기 위해 프랑시스쿠 까우데이라 가스펠루 브라구(Francisco Caldeira Castelo Branco)가 지휘한 군사원정대의 일원이었다. 한 세기가 지난 18세기 초에도 아마존의 포르투갈 정착민은 1,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된 원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영토를 온전히 점유하고 있었고 이 지역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다. 1720년 식민체제에 편입된 ‘노예’ 신분의 원주민들과 ‘자유’ 원주민들의 수는 약 75,000명에 달했다(Raiol 1900, 132; Freire 2003, 49, 재인용).

이렇듯 지리적으로나 인구 구성으로 보나 포르투갈의 점령이 아직 공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르투갈어를 처음부터 소통의 언어로 택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계획이었을 것이다. 이제 가능한 것은 다양한 언어들 중 가장 우세했던 한 언어와 그것이 당분간 짝지어야 할 ‘건설적’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뚜뻤 대 따뿌이아 대립구도 형성과 따뿌이아의 뚜뻤화

아마존 지역의 식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7세기 초부터 18세기에 걸친 언어 정책의 변화, 그들이 택한 뚜뻤낭바어가 아마존 일반어로 이항단계들을 뚜렷하게 경계 짓기는 어렵다. 정확히는 이 언어의 다양한 명칭 자체도 시기적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주민 언어를 소통 언어로 삼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있는 와중에도 뚜삐낭바어는 실질적으로 이미 아마존을 비롯한 브라질의 해안 지대에서 ‘일반적인’ 또는 ‘공통적인’ 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geral’이라는 수식어도 이미 아마존 일반어의 기틀이 다져지기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16세기에도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언어를 ‘a língua’(the language), ‘a língua geral’로 부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정확히 어느 시점까지는 그 명칭이 뚜삐낭바어였다가 그 직후부터 돌연 일반어로 그 이름과 속성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구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일언어화를 위한 이 시기 정책들은 비록 원주민 언어를 출발점으로 삼기는 했으나 궁극적으로 아마존 지역의 언어문화적 정체성을 포르투갈적 요소로 바꾸어 나가는 큰 흐름에 속한 것이었다. 그렇게 볼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포르투갈이 의도한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 간의 관계와 원주민과 포르투갈인들의 관계는 무엇이었느냐에 초점을 맞춰 살펴봄으로써 다소 중첩되기도 하나 어느 정도 순차적 성격의 단계들을 짚어낼 수 있다. 보르제스와 바후스는 일반어 발명과 확장의 과정을 크게 2단계로 구분한다(Borges 1996; Barros 2003).¹⁹ 첫 단계는 다양한 원주민 언어 사용 현실을 1개의 주된 원주민 언어인 뚜삐어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바후스는 ‘비 뚜삐족(따뿌이아)의 뚜삐화’, 보르제스는 ‘뚜삐화와 따뿌이아화’라는 구분으로 첫 번째 단계를 명명하고 있다. 브라질은, 적어도 해안 지역과 주요 강들의 주변 지역들은 하나의 일반어 사용을 실시하기에 ‘이상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Barros 2003, 136). 거주 부족들 다수가 뚜삐낭바어를 구사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소통이 필요한 모든 원주민들과 뚜삐낭바어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빠우브라질 나무를 채취하고 해안에 정착하려던 포르투갈인들에게 이 언어는 매우 효용 가치가 있었다(Rodrigues 1993, 83, 86). 프레이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아마존 일반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616년 빠라에 처음으로 포르투갈인들이 이 지역 식민화를 위해 도착했을 때이다. 브라질 대부분의 해안에서 그랬듯 사우가두 해안에서부터 또깡칭스 강 입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어가 분포해 있었지만 그중 뚜삐낭바어가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 정착민들은 빠라에 정착하기 전 마라녜웅과 삐르낭부꾸에서 ‘língua brasílica’(브라질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뚜삐 계통의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뚜삐낭바어는 자연스럽게 빠라에서도 포르투갈인들과 원주민, 그리고 까보끌루들의 소통

19 마지막 단계는 18세기 중반 뽕바우 개혁과 함께 시작된 아마존의 포르투갈화이다.

언어가 되었다(Freire 2003, 51)

그에 비해 다른 소수 언어들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바이슈 아마조나스(Baixo Amazonas) 지역은 뚜뻬 계통의 언어와 함께 타 부족 언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대표적인 곳이었다. 바후스는 17세기와 18세기 바이슈 아마조나스 지역에서의 일반어에 대한 연구의 도입부에서 아마존의 식민화 과정에서 언어 정책이 브라질 타 지역에서와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었음에 집중하며, 이 지역에서 뚜뻬어화라는 과제가 지녔던 당위성을 조명한다. 상대적으로 언어학적 동질성을 보였던 브라질의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의 언어 분포는 지나치게 복잡했다. 특히 뚜뻬어로 비 뚜뻬족들을 뜻하는 따뿌이아(tapuia 또는 tapuya) 언어들의 존재는 예수회에게는(그리고 왕실에게는) “얼룩”과도 같았다(Barros 2003, 86). 아무나 신부는 이 지역에 대한 관찰에서 “그곳에는 온통 서로 다른 부족과 언어들이 분포해 있다.”고 말하고는 곧이어 “그나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곳의 해안 지대에서 쓰이는 a geral, 즉 일반적인 말을 알아듣는다.”라며 뚜뻬어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Acuña 1641, 280; Freire 2003, 52, 재인용).

일단 식민 통치자들의 선택을 받은 뚜뻬낭바어는 따뿌이아의 동질화를 위한 수단으로 그들에게 강요되었다. 그것은 주로 식민화를 위해 조직된 선교부락(aldeias de repartição)으로의 편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교리교육을 통해서였다. 내륙에 살면서 주로 수렵, 채집에 의존하던 비 뚜뻬족들은 본래의 생활 터전을 잃고 이 부락에 이식되었다(Barros 2003, 85-87). 그 편입의 경로는 크게 2가지였다. 하나는 ‘정전’(guerra justa)으로 식민 통치자들에게 적대적인 원주민의 포획과 노예화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정당한 혹은 정의로운 전쟁’을 의미했다. 또 하나는 온순하지 않은 원주민들을 ‘설득’이라는 비교적 평화로운 방식으로 원래의 마을에서 선교부락으로 이전시키는 원정대를 의미하는 ‘descimento’²⁰였다. 원주민들을 부락에 모아 그룹화하고 교리교육을 실시하는 이른바 ‘aldeamento’는 원주민들의 부족적, 언어적 차이들을 무효화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바이슈 아마조나스에서와 같이 그러한 부락은 대개 그 배치 자체가 다양한 원주민들의 부족 간 구분을

20 아마존 삼림지대에 주로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해안가로 ‘내려오도록’(descer) 설득한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으며, 원칙적으로 군사적 성격을 띠지 않은 원정대로서 선교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Freire and Malheiros 2020).

무시하고 이루어졌다(Perrone-Moisés 1992, 118-119). 이 기술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원주민들의 정체성 박탈에 기여하였고, 사실 이는 명백히 의도된 것이었다(Fausto 2006, 49-50).²¹ 투삐낭바어, 또는 이미 일반어로 불리고 있었던 타자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되었던 비 투삐족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다니에우 신부는 마라조(Marajó)섬에서 한 이엥가이바(Nheengatiba)족 여자가 자기 부족의 말을 버리고 일반어를 쓰는 것을 거부해 교육을 담당한 신부로부터 “두 손이 붓고 피가 날 때까지” 매질을 당한 사례를 기록으로 남겼다(Daniel 2004, 272). 원주민들이 일반어 사용이라는, 포르투갈 왕실이 제도화한 명령에 불복종해 매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체적 처벌을 받은 것은 당시의 기록들에 빈번히 등장한다. 이는 아마존 식민화가 시작되던 17세기 초반까지는 비 투삐족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고 그들의 저항 역시 더 거셌을 것이다. 그 이름이 투삐낭바어였던 일반어였던 아직은 투삐낭바어가 체계적 수정 없이 부족어로서 그대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암시했듯 투삐낭바어가 식민화의 언어, 정복의 언어로 선택된 순간 이미 본질적으로는 예전과 동일한 부족어로서의 투삐낭바어일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식민화 이전 투삐낭바어의 사용은 투삐족에게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식민화 구도 안에 위치한 투삐낭바어의 사용은 이제 의무적인 것이었고 그들의 주체성이 발현될 여지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부족어로서의 성격이 강했기에 비 투삐족이 당면한 것과 같은 기술적 어려움은 덜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투삐족이 당면했던 어려움은 생존과 소통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 때문에 비 투삐족의 투삐화로 요약되는 이 초기 통합 과정에서 투삐족의 저항이 있었는지, 어떤 양상이었는지와 같은 의문은 종종 간과된다. 비록 이 의문

21 파우스투는 원주민을 복속시키기 위한 포르투갈의 정책 2가지에 대해 설명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하나는 식민자들의 경제적 차원의 냉혹한 계산에 의한 노예화였고, 또 하나는 예수회가 주축이 된 종교 교단들을 통한 원주민의 영혼 구원을 명분으로 내건 정책이었다. 예수회의 정책은 원주민들을 한 장소에 모아 ‘선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으로, 유럽인의 관습과 노동의 가치와 전통을 그들에게 심어 줘 왕실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식민자들과 예수회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회가 원주민 문화를 존중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회의 신부들이 원주민이 과연 인간인가 하는 의문을 품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기록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인디오들은 서로를 잡아먹고 죽이는 것이 마치 개들과도 같으며, 행동거지와 악한 습관을 보면 마치 돼지와도 같다”라고 한 마누에우 다 노브레가 신부의 기록은 그 중 하나이다(Fausto 2006, 49-50).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닐지라도 흔히 식민화와 함께 선과 악의 구도로 고착화된 뚜빠-따뿌이아 관계를 이 지점과 맞물려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살펴본 예수회 신부들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포르투갈인들이 정복 초기부터 인지한 뚜빠족과 비 뚜빠 부족들의 구분은 이미 정복 전부터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것이었다. 따뿌이아는 뚜빠족이 내륙 지역에 모여 살며 뚜빠어를 사용하지 않은 방대한 부족들을 통틀어 부르던 이름으로, 뚜빠족의 시선에서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들과 반대의 속성을 지닌 존재였다. 뚜빠족에게 따뿌이아들은 ‘야만적’이며, 농경의 전통이 없는 열등한 ‘유목민’이었다. 하저웅과 하딩(Raoni Rajão and Sandra Harding)은 이러한 뚜빠-따뿌이아 관계를 “타자 안의 타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한다(Rajão and Harding 2018, 87-91). 그러나 이 같은 적대적 관계는 유럽에 의한 식민화라는 맥락에 놓이면서 한층 더 체계적인 차별화와 수직적 이분법적 구도로 고착되어 갔다. 뚜빠족은 식인 풍습을 비롯해 포르투갈인의 눈에 야만적으로 비친 관습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동시에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부 작물 경작과 같은 농업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뚜빠족은 식민지에서 포르투갈인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문명화된 사회의 모습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부족으로 여겨졌다. 농업에 요구되는 정착 생활, 땅과 작물 및 날씨에 대한 지식, 화전농법, ‘비교적’ 규칙적인 노동의 전통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을 것이다. 따라서 뚜빠-따뿌이아 구도 내에서 뚜빠족이 통합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르투갈인은 그 구도의 바깥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뚜빠족과 포르투갈인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듯 뚜빠어와 포르투갈어가 대등한 위치에 놓인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뚜빠와 따뿌이아라는 명칭과 구분 자체는 뚜빠족의 것이었지만 포르투갈인의 인식을 텃입은 그 구분의 주체는 더 이상 뚜빠족이 아니었다. 그러한 구도는 포르투갈이 아마존을 식민화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된 것이다. 빼호니-모이제스가 다양한 부족들로 구성된 따뿌이아의 이미지가 “이중 왜곡의 산물”임을 지적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부족들의 이미지는 이중으로 왜곡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정보들은 두 개의 문화적 시각을 통해 알려지게 됐기 때문이다. 하나는 포르투갈인들의 시각이며 하나는 그들의 정보원, 즉 뚜빠남부족들의 시각을 통해서다. 따라서 따뿌이아들에 관해 알려진 것은 그만큼 공허하다(Perrone-Moisés 2012).

뚜삐 대 따뿌이아의 관계가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나 이들 본연의 성질이 아닌 포르투갈인들에 의한 ‘대우의 차이에 의해 생겨났다’는 가브리엘루 아스니스(Gabriel Zissi Peres Asnis)의 분석은 이와 일맥상통한다(Asnis 2019, 21). 발견 전부터 존재했던 부족들 간 구분과 적대감은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장려되어 뚜삐낭바어와 따뿌이아 언어는 각각 ‘인간의 언어’와 ‘비인간의 언어’들로 대비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당시의 기록들은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을 ‘사람’과 ‘동물’, 혹은 ‘사람에 더 가까운’ 원주민과 ‘동물에 더 가까운’ 원주민으로 구분한 포르투갈인의 시선을 보여 준다. “인디오들은 (사람처럼) 집에서 사는데 아이모레는 동물처럼 숲에서 산다”는 보고가 그것이다. 아이모레는 따뿌이아에 속한 대표적 부족이었다. 뚜삐낭바족과 아이모레족의 인육을 먹는 관습에 대한 기술도 상이했다. “뚜삐낭바족은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인육을 먹지만 아이모레족은 인육을 즐긴다”는 것이다(Fausto 2006, 37-38). 그러한 기술만으로 아이모레족의 식인 풍습을 더 혐오스러운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왕실이 최초의 원주민 관련 법령을 공포했을 때 아이모레만 원주민 노예화 금지 조항에서 제외됐던 사실을 통해 포르투갈이 뚜삐낭바족의 ‘약점’으로 인식한 특성까지도 관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앞서 기술한 뚜삐족이 가진 식민화에 유리한 특성 때문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특히 호전적이고 정복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아이모레족의 성향 때문이기도 했다. 결국 뚜삐족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도, 아이모레를 포함한 따뿌이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도 모두 포르투갈 식민 통치자들이 식민화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한 편파적이고 해석에 기반한 것이었다. 따라서 포르투갈과 아메리카의 조우 이후의 원주민 사회에 대한 기록들은 그 사회가 지녔던 다양성의 은폐와 왜곡,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마존과 원주민은 정복과 함께 역사 시대에 편입되었으나 이제 아마존의 주인도 아니었고, 문자가 없었기에 기록의 주체도 될 수 없었다. 포르투갈의 식민화 수단이 된 뚜삐와 따뿌이아라는 이름과 관계들은 상징적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어쩌면 아마존 사회에서 유일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틀이었을 것이다.

소통의 측면에서 봤을 때, 원주민들의 분열과 동시에 정복지의 통일을 위한 언어, 문화적, 심리적 대립구도 형성의 도구로 쓰인 뚜삐낭바어의 소통 기능은 의도적인 모순을 내포한다. 뚜삐계 부족의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전제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소통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분열을 야기하고, 열등화된

타자의 존재론적 발화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반복하건대 열등한 위치에 놓인 것은 비단 따뿌리아만은 아니다. 물론 따뿌리아가 겪은 열등화는 먼저는 뚜삐족에 의해, 이어 포르투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그러나 뚜삐족 역시 이미 아류 억압자의 위치로 전락함으로써 이미 열등화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식민화의 첫 단계는, 즉 아마존 사회에 존재했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2개의 범주로 단순화한 것은 통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불완전하고 도전적이다. 비록 뚜삐 계통을 제외한 여러 부족들은 따뿌리아라는 1개의 단위로 환원되었고 뚜삐족 역시 포르투갈의 정복민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뚜삐낭바어는 여전히 원주민 부족의 언어였다.

아마존 일반어의 탄생과 ‘일반 인디오’(índio genérico)의 형성

이제 아마존 식민화의 두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포르투갈어-뚜삐낭바어라는 언어문화 구도를 포르투갈어 체계로 일원화하여 식민지 내 소통의 장에서 주도권의 완전한 이동을 꾀하는 것이었고, 그 이행을 매개한 것은 뚜삐낭바어의 ‘수정’이라는 과정이었다. 실제로 이어서 이루어진 것은 1차적 식민화 과정을 거친 뚜삐낭바어를 언어 자체의 성질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었다. 뚜삐낭바어의 2차 식민화라고 부를 수 있겠다. 애초에 포르투갈인들이 원주민들에게 기대하고 부여했던 땅의 통역자, 부족 간 통역자로서의 원주민의 역할은 점차 비본질적이고 주체성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야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체제 순응적인 온전한 객체로 만드는 과정에 착수해야 했다. 따라서 소통어로 기능하던 원주민의 언어가 더 이상 원주민의 것이어서는 안 되었음은 당연하다.

이 과정을 보르제스는 ‘뚜삐낭바어의 부족성 해체’(destribalização do tupinambá), 바후스는 ‘예수회식 뚜삐어의 표준화’(standardização do tupi jesuítico)라 명명하였다(Borges 1996; Barros 2003). 예수회식 뚜삐어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 뚜삐어의 부족성 해체를 통한 일반어 이영가투어의 형성과 문법 체계 수립을 주도한 것은 예수회였다. 당시 브라질을 체계적으로 식민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두 기관으로 간주되었던 국가와 가톨릭 교회는 정복과

확장이라는 대전제를 공유하였다. 예수회는 아마존 일반어를 만들어 보급하는 과정에서 역시 다양한 원주민들의 차이를 덮어버리고 포르투갈 중심의 식민지 통합을 위해 언어의 일원화라는 목표를 공유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공로를 세웠다고 평가받는다.²² 예수회가 일반어의 문서화와 아마존 전역으로의 지리적 확산, 진화, 체계화를 통해 그 형성과 진화를 주도한 것은 17세기와 18세기의 일로, 이는 비에이라 신부가 아마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한 1653년부터 뽉바우의 개혁과 예수회 축출로 아마존의 마지막 신부가 된(1757년) 다니에우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예수회의 일반어 정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뽉바우의 수정을 통한 일반어화 과정에서 예수회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당시 브라질의 식민화를 기술하며 호자가 “대 원주민 정책에서 왕실이 ‘일반어’의 제도화를 지원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인다(Rosa 2003, 136). 실제로 일단 일반어의 모태로 선택된 뽉바우어에 대한 포르투갈 왕실의 입장은 확실했다. 이미 1549년 토메 드 소우자 초대 총독과 예수회가 브라질에 입성하고부터 뽉바우 개혁기에 걸쳐 포르투갈 왕실이 취한 대 원주민 정책 중 하나는 일반어의 사용과 확장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동 주어왕 6세는 1652년 왕실칙령(Carta Régia)에서 예수회의 식민지의 교회를 위한 예수회의 교리교육 활동을 인정하며 비에이라 신부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였고, 그 지원은 ‘그 언어’, 즉 일반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 나는 그대들이 복음 전파에 계속해서 힘쓰며 그 지역들(마라냐옹)까지도 복음을 가져가기를 격려한다. 그것을 위해 그대 사제들의 눈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그대들이 선택하는 곳 어디라도 가서 교회를 세우고, 미션을 만들 것을 명한다. 거기서 만나는 인디오들을 이끌어 선교부락에 거주하게 하여 그들의 회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대로 행하기를 명한다. [...] 인디오나 카누, 그 땅과 그 언어에 (능통해) 쓸모있는 사람들 (pessoas práticas na terra e língua), 그 무엇이든 (선교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22 식민지 브라질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소우자와 함께 노브레가 신부가 브라질 땅을 밟았을 때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예수회는 국가와 목표를 같이했다. 그 목표란 원주민들에게 교리교육을 시키고 식민지에 드물게 존재하는 좋지 못한 평을 받는 사제에 훈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식민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둘은 식민지에 국가와 교회를 이식하고 정비하기 위해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행해 나간다(Fausto 2006, 47). 다만 식민지에 대한 예수회와 교회의 입장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예수회는 원주민에 대한 시각과 대우에 있어 타 교단들과도 대비되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고, 나아가 국가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훗날 예수회는 아마존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축출된다.

호의를 제공할 것이다(Carta Régia 1652; Freire 2003, 55, 재인용).

1689년 11월 30일자 왕실 칙령에서는 아마존 일반어를 마라녜옹이그러옹빠 라주의 공식 언어로 인정했다. 17세기 초부터 이미 선교사들은 원주민뿐 아니라 아마존의 중심 지역에 거주하던 포르투갈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언어를 가르쳐야만 했다(Kiemen 1954, 170; Freire 2003, 55, 재인용).²³

사용자의 확대와 특정 부족의 정체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온전한 일반어로서의 형성과정에 있던 뚜삐낭바어는 (포르투갈 제국과의) 정치적 일원화를 정당화하는 연설과 맞물려 있었던 원주민들의 가톨릭으로의 교화 혹은 회심을 위한 설교와 교리교육, 의식의 실행을 위한 지배적 수단이 되어 갔다. 소통 수단으로서 뚜삐낭바어의 지위가 격상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은 본래 원주민들의 교리교육과 다른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브라질로 파송되기 전과 후에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던 일반어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 힘쓰게 됐다(Orlandi 2004; Mariani 2017, 재인용). 또한 뚜삐낭바어로 된 사전, 문법서들을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다. 루이스 피게이라 신부는 1621년 일반어 사전과 문법서인 『일반어의 (문법) 기술 *Arte da Língua Geral*』을 만들어 보급했으며, 이 문서는 1685년에도 수정을 거쳐 재보급될 정도로 오랜 기간 일반어 확장에 공헌하였다. 피게이라라는 그의 첫 일반어 교재를 펴내고 5년 후 1626년에 그러옹빠라이마라녜옹에 이 지역의 첫 학교를 세웠다. 포르투갈인의 자녀 교육을 위한 이 학교에서의 교육은 일반어와 포르투갈어로만 이루어졌다. 원주민의 구조와 개종을 위한 교리교육과 같은 활동은 더더욱 하나의 일반어 사용을 가능케 했을 뿐 아니라 필요케 했다(Freire 2003, 53).

23 기록에 의하면 포르투갈 국왕은 아마존의 카르멜, 메르세드, 산프란시스코 교단 수사들이 예수회 수사들만큼 일반어에 능통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주 꾸짖었다(Sweet 1974, 106).

Expansão das línguas gerais no Bras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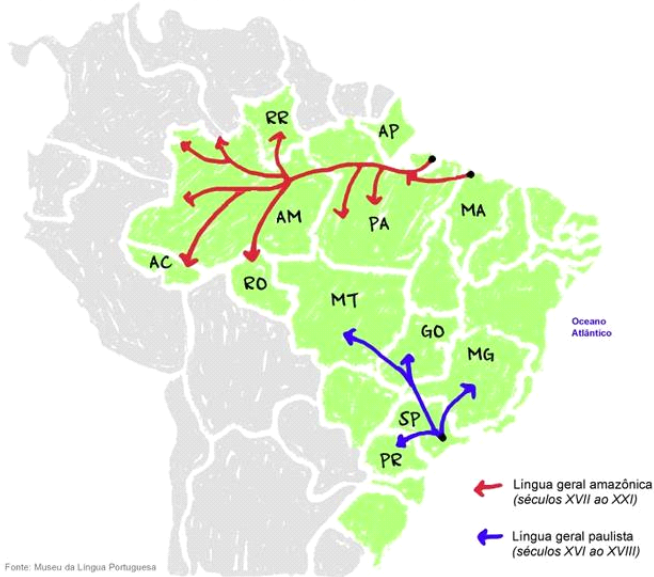


그림 2. 상파울루 일반어와 아마존 일반어의 확장

출처: “Povos Indígenas no Brasil”, Museu da Língua Portuguesa, Instituto Socioambiental(ISA)²⁴

하나의 일반어로 향해 가는 이 과정, 혹은 이 시기 선교부락을 중심으로 한 아마존 지역에는 2가지 형태의 뚜뻐어가 공존하고 있었다. 추방당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아마존에 머물렀던 다니에우 신부는 그 상황을 묘사하며 이 둘을 각각 “뚜뻐낭바족(이 사용하는) 옛 일반어”와 “변질된 일반어”로 명명했다.

전자는 살아남은 소수의 뚜뻐낭바족들이 사용하고 예수회에 의한 문법 및 교리교육에서 쓰이는 뚜뻐어로서 문어의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더 늦게 식민체제에 편입된 비 뚜뻐족들과 포르투갈인들이 사용하는 뚜뻐어로 미션의 경제생활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 변질된 뚜뻐어는 “진정한 일반어”, 즉 본래의 순수한 뚜뻐낭바어와는 너무도 달라서 마치 다른 언어와도 같았으나, 뚜뻐낭바족은 소수였고 따뿌어는 다수였다(Daniel 2004, 333-334).

24 <https://img.socioambiental.org/v/publico/pibmirim/linguas/linguas-gerais/OK.jpg.html>(검색일자: 2019.09.30.)

여기서 그가 “본래의 뚜삐낭바어”를 “진정한 일반어”라고 말한 것은 부족어의 상태에 있는 뚜삐낭바어 자체에 대한 애착과 안타까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앞으로 더 힘써 기록해야 할 진정한 일반어에 쓰일 ‘타 원주민 언어에 비해) 비교적 나은 언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포르투갈인들의 눈에 이 상황의 본질은, 다시 말해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닌 변질된 뚜삐낭바어 사용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보다는 그 상황이 아직 포르투갈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보르제스가 주목하는 원주민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비록 뚜삐낭바족으로 대표되기는 하나— 이른바 ‘양층언어’(diglossia) 현상에 대한 묘사는 바로 위 문제 상황에 대한 예수회의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수회는 이제 본래의 뚜삐낭바어를 기반으로 한, 그러나 이미 ‘문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초석을 다진 예수회식 뚜삐어와 이의 표준화를 공고화하는 데 주력한다. 따라서 18세기 들어 더욱 두드러지게 아마존 지역에서 관찰되는 양층언어 상황은

분명히 부족적 성격의 뚜삐낭바어, 즉 부족적 삶을 영위하며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뚜삐낭바족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가 있는 한편, 포르투갈어에 의해 전유되어 식민지 북부 전역에 퍼져 부과된 일반어로서의 초부족적 뚜삐낭바어가 존재하는 것이다.²⁵

앞서 제시한 다니에우의 기록은 교리교육에 사용되는 일반어와 비 뚜삐족 및 포르투갈 정착민들이 생활활동에 사용하는 일반어의 양립상황을 묘사했다. 한편 보르제스가 주목하는 것은 초부족적 및 언어적 일반성(*generalidade*)이라는 기반이 다져져 새로운 언어로 출현한 예수회식 뚜삐어와 부족어로서의 뚜삐낭바어의 양립상황이다. 그 출현이라 함은 기존의 뚜삐어에는 없었던 일부 자음 추가, 인칭과 그에 따른 동사 변화의 급격한 간소화가 이루어지는 등 포르투갈어 모델을 따른 재체계화를 거친 차별화된 언어로의 존립을 의미하며, 18세기부터 그 차이는 더 뚜렷해졌다(Borges 1996, 48).²⁶ 각기 다른 초점을

25 호드리게스는 부족적 성격의 뚜삐어를 초부족적 성격의 언어와 구별하기 위해 뚜삐낭바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한 양층언어 현상의 또다른 예는 파라과이에서 발생했는데, 부족적 성격의 과라니와 소위 파라과이식 과라니(*guarani paraguaio*)라는 서로 매우 다른 성격의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Rodrigues 1986).

26 보르제스에 따르면 어휘는 여전히 뚜삐낭바어가 주를 이뤘지만 포르투갈어에서 온 용어들이 추가되었으며, 그 외 원주민 부족들의 언어에서 유래한 단어들도 출현하였다.

가지고 기술된 이 2개 언어 양립 상황은 기본적으로 투삐낭바어의 일반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차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바후스가 식민지 아마존의 언어 정책을 ‘파뿌이아 그룹들의 투삐화’와 ‘예수회식 투삐어의 표준화’로 정리한 것은 이러한 선후관계를 나타낸다. 이 정책이 포르투갈에 의한 설계라는 측면에서 전자는 시기적으로 후자에 선행하나, 그 두 가지의 양층언어 현상이 동시대에 공존하기도 했다. 원주민의 정체성을 거세한 일반어가 된 이른바 예수회식 투삐어, 혹은 프레이리가 부르는 것처럼 “식민적 투삐낭바어”와 본래의 투삐낭바어와의 구분은 보다 두드러진 것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투삐낭바어나 투삐어라는 하나의 이름에 부수적 어휘를 수반해 지칭될 수 없는 언어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반복하건대 브라질이 식민시대와 제국시대에 걸친 시기 형성과정에 있던 이 일반어의 명칭은 다소 혼란스럽다. 특히 이처럼 ‘두 언어 간의, 아니 ‘두 언어로의’ 구분이 불가피하게 된 18세기 이전의 상황을 기술하는 1차 문헌들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토대로 나온 연구물들은 더욱 그렇다.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투삐어-아마존 일반어-이엥가투어라는 스펙트럼은 다양한 이름들로 채워져 있다. 그중에서도 투삐어와 투삐낭바어, 그리고 일반어라는 명칭들이 종종 명확한 구분과 설명 없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투삐어와 투삐낭바어와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투삐낭바어는 투삐어족에 속하는 하위 범주이다. 투삐낭바어 외에도 투삐 계통의 언어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상파울루 일반어는 투삐 계통의 다른 언어들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졌다. 단 아마존 지역에서는 투삐낭바어 외에 사용자 수와 분포에 있어 그에 필적할 만한 또 다른 투삐 계통 언어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투삐어’와 ‘투삐낭바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보다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투삐어 혹은 투삐낭바어와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음운론적 및 형태학적 적응 과정을 거침으로써 포르투갈성을 축으로 하는 하나의 새로운 언어화가 추구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Borges 1996). 정확히 언제부터 이엥가투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존재하는 문헌들은 앞서도 언급한 꼬우투 드 마갈랑이스가 19세기에 아마존 일반어를 그 이름으로 부른 것을 공식적인 사용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이엥가투어는 그 직전 시기의 아마존 일반어와는 또 다른 양상을 겪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언어의 성격을 띤다. 이는 주로 타 부족들은 물론 이민 유입 등으로 인한 아마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과 그 언어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것이다(Freire 2003).

아마존 일반어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일 것이다. 이 혼란은 엄밀히 말하면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듯 뚜삐낭바어가 일반어가 된 것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아마존 일반어 그 자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존 정주가 본격화 되기 전인 16세기에도, 식민화가 이제 막 시작된 17세기 초에도 뚜삐낭바어는 일반어일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불렸던 것이다.

과정 그 자체로서의 아마존 일반어는 포르투갈이 초반에 주력한 ‘뚜삐대 따뿌이아’ 구도를 거쳐 원주민 일반화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였고, 18세기 중후반 아마존 사회는 ‘원주민 대 포르투갈’로의 전환을 이제 막 이룩하였다. 포르투갈인들과 원주민들의 조우 당시 이미 뚜삐어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이자 초기 소통어로 채택되게 했던 수적 우위라는 조건도 이제 의미를 상실했다. 실제로 이 시기 뚜삐족은 소수에 불과했고, 특히 선교부락에 정착한 원주민들 대다수가 뚜삐어를 구사하지 않음에도 뚜삐어가 모든 활동의 언어로 여전히, 그리고 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된 것은 식민자들에게 뚜삐어는 더 이상 원주민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적어도 원주민들을 ‘위한’ 언어는 아니었다. 전에 속했던 사회로부터 뿌리 뽑혀 식민체계에 이식된 원주민들에게는 과거 주체로서 누렸던 전통적 지위에 전혀 상응하지 않는 복속과 문화말살이 강행되었다. 따뿌이아라는 추상적 범주가 말해 주듯, 이 과정은 다양한 부족 출신으로서 고유의 구체적인 역사, 언어, 문화를 가졌던 원주민 개개인이 ‘índio genérico’, 즉 ‘일반 인디오’로 환원되는 식민 역사이다(Borges 1996, 48-49). 이 같은 원주민과 그 문화의 개별성과 고유함에 반하는 개념으로서의 일반성의 주조는 원주민 언어의 일반화, 즉 일반어의 주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개별성 희석과 평균치 산출을 통한 정체성 제조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18세기에 포르투갈어는 아직 행정언어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뚜삐낭바어, 이후에는 이엥가뚜어는 일반어로서 아마존 지역의 거의 모든 분야와 활동에서 지배적인 언어의 위치에 있었다. 아마존 일반어의 그 같은 확산과 지위는 언뜻 포르투갈어의 지위와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식민시대 아마존 일반어를 다루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 시기 포르투갈어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일반어가 포르투갈어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게끔 기술하기도 한다. 저자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반어와 포르

투갈어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접근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프레이리가 그의 논문에서 아마존 일반어의 위상을 강조하며 “1823년 브라질 식민주와 그라옹빠라 식민주가 브라질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을 때 포르투갈어는 이미 브라질 해안 지역의 대부분에서 헤게모니적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아마존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수의 언어였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가 (Freire 1991, 50).²⁷ 맥락 없이 이해한다면 이로부터 명백히 아마존 일반어와 포르투갈어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기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부족으로 이루어진 원주민과 백인, 까보플루 간 소통 언어로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언어적 규범으로 부과된 아마존 일반어의 지위는 포르투갈어에 반(反)하여 구축된 것이 아니었다. 아마존 일반어에 부여된 사명은 애초부터 권력의 표준어로서 기능하는 것이었고, 17-18세기에 걸친 그 변천 과정은 그 기능의 공고화 과정이다. 즉 일반어는 원주민에게 “백인의 언어”로서 강제되었다(Barros et al. 1996, 193-198). 포르투갈이 예수회를 통해 원주민들에게 일반어의 사용을 장려한 것은 일반어의 원주민성이 아니라 그 반대의 속성, 즉 포르투갈어 중심의 단일언어화로 이끌어 줄 ‘일반성’에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나가는 말

그 사용 범위와 위상에 있어 정점을 찍은 18세기 아마존 일반어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식민지들에 의한 원주민과 그 언어의 일반화, 원주민의 비인간화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인간성이 그대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매우 명백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원주민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존 일반어 역시 권력의 표준어로서만 취급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굳이 까바나쟁을 전후로 원주민과 까보플루가 아마존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지점을 다루지 않더라도 그렇다. 보르제스는 “아마존 일반어,

27 역사가 주제 오노리우 호드리게스(José Honório Rodrigues)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의 승리는 발견자들이 (브라질에) 도착한 후 300년이 지나 브라질인들이 1823년 헌정의회의 토론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말했을 때에야 이루어졌다.”(Rodrigues 1983, 21).

혹은 이엥가뚜어는 자연적인 언어인가, 정복자들, 특히 선교사들에 의해 주조된 언어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 견해는 이엥가뚜어가 유럽의 지배와 점유 정책의 역사적인 조건들 하에서 뚜삐낭바어의 진화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략] 이엥가뚜어의 진화 과정에 있었던 간섭 요소들은 그 음운과 형태 혹은 문장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조치들에 의해서보다는 시간과 수단의 특수성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중략] 이엥가뚜어에 일어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첫째, 언어라는 것에 고유하게 내재된 역동성, 둘째, 지리적 확장, 문화 및 언어 환경의 다양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마땅하다(Borges 1996, 44).

그의 견해는 이엥가뚜어의 식민적 기원과 거기에 투영된 포르투갈의 정복 야욕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엥가뚜어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역동성과 그 역동성을 가능하게 한 비지배계층 사용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복자들에 의해 촉발된 뚜삐낭바어의 ‘변질’ 그 자체가 현재 이엥가뚜어의 의미를 무효화할 수는 없으며, 그 변질 혹은 변화라고 하는 것도 온전히 정복자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은 뽕바우 개혁과 함께 찾아온 식민지의 포르투갈어화와 이엥가뚜어 금지를 전후로 전개된 원주민과 까보플루를 중심으로 한 저항은 개혁 전부터 시작된 이들의 주체적 이엥가뚜어 사용과 이에 부여된 새로운 의미를 연구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물론 이 언어는 식민시대와 독립 직후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온전한 마주침이 있는 상호 소통의 언어로 기능하지는 않았다. 식민 통치자와 원주민이 각기 다른 시기에, 전자는 후자의 일방적 대상화의 수단, 후자는 전자에 대항한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이엥가뚜어에 투영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본 논문은 원주민들은 누구였는가, 오늘날 원주민은 누구인가와 같은 원주민들의 정체성에 관해 직접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논문이 아니며, 실제로 원주민을 비롯한 아마존 일반어의 사용 주체들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먼저 식민시대 관련 문헌에의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본고가 먼저 아마존의 언어 다양성과 아마존 일반어를 향한 포르투갈의 해석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원주민 관련 문제를 논하려 한다면 이 시기 언어 정책을 통해 구축된 포르투갈과 원주민 관계의 변천 과정에서, 즉 과정으로서의 일반어

체제하에서 (포르투갈인들에게) 원주민은 누구였는가 혹은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브라질 역사에서 그들이 위치해 온 타자로서의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더디지만 이제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사회 참여를 위한 주체적 발의를 일구어 내려 하는 원주민들이 그 같은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단순 미화인지 아니면 비판적 인식인지— 그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질료로 소화하는지를 다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네그루강을 중심으로 한 이엥가뚜어의 ‘공식화’에 대해 환상을 품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여전히 브라질 사회에는 이엥가뚜어 사용자들을 열등하거나 동화되지 못할 성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 원주민들이 그들을 부를 때 쓰는 ‘maku’라는 말은 ‘야생의’, ‘문명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엥가뚜어는 지금도 식민시대에 그랬듯 이중의 시선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치적 수사에서 원주민은 브라질의 정체성을 풍요롭게 해 주는 모태이자 전 지구적 위기 앞에 대안적 세계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생태환경 지식 전문가이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열등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호드리게스와 프레이리가 이엥가뚜어를 비롯한 식민시대 남아메리카의 일반어들에 대한 연구를 해오며 고백하듯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브라질의 식민화, 특히 언어적 식민화과정이라는 전형적인 현상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Freire and Borges 2003, 7-10). 따라서 지금 원주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혹은 어떤 형태로든 그들과 관계를 맺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한 무지와 모순 자체에 대한 인정이다.

참고문헌

- Angelo, C.(1998), “A língua do Brasil,” *Revista SUPER Interessante*, 30/11/1998, <https://super.abril.com.br/cultura/a-lingua-do-brasil/>(검색일자: 2019.08.21.)
- Asnis, G. P.(2019), “Da guerra a paz? Dicotomias que escondem múltiplos caminhos: Análise histórica sobre os ‘Cayapó’ aldeados em Maria I e São José de Mossâmedes,”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dade Federal de Uberlândia.
- Barros, C. M.(1982), “Política de lenguaje en Brasil colonial(1549-1749),” master’s dissertation, Escuela Nacional de Antropología y Historia.
- _____ (2003), “Notas sobre a política jesuítica da língua geral na Amazônia(séculos XVII-XVIII),” in J. R. B. Freire and M. C. Rosa(orgs.), *Línguas Gerais: Política Linguística e Catequese na América do Sul no Período Colonial*, Rio de Janeiro: EdUERJ, pp. 85-112.
- Barros, C. M. et al.(1996), “A Língua Geral como identidade construída,” *Revista De Antropologia*, Vol. 39, No. 1, pp. 191-219.
- Borges, L. C.(1991), “A Língua Geral Amazônica: aspectos de sua fonêmica,”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dade de Campinas(Unicamp).
- _____ (1996), “O nheengatu: uma língua amazônica,” *Pápiá*, Vol. 4, No. 2, pp. 44-55.
- Brianezi, T.(2006), “Presidente de federação indígena elogia adoção de três idiomas por município do Amazonas,” 10/11/2006, *Agência Brasil*, <https://memoria.ebc.com.br/agenciabrasil/noticia/2006-11-10/presidente-de-federacao-indigena-elogia-adocao-de-tres-idiomas-por-municipio-do-amazonas>(검색일자: 2020.09.12.)
- Cabral, A. C. et al.(2014), “A linguística histórica das línguas indígenas do Brasil, por Aryon Dall’igna Rodrigues: perspectivas, modelos teóricos e achados,” *DELTA: Documentação de Estudos em Linguística Teórica e Aplicada*, Vol. 30, pp. 513-542, <https://doi.org/10.1590/0102-44509064499061809>
- Cardim, F.(1980[1584]), “Informação da missão do Padre Christovão Gouvêa às partes do Brasil —anno de 83 ou Narrativa epistolar de uma viagem e missão jesuítica[1584],” in R. Garcia(Int.), *Tratados da terra e gente do Brasil*, Belo Horizonte/São Paulo: Itatiaia/Edusp, pp. 101-103.
- Daniel, J.(2004), *Tesouro descoberto no Rio Amazonas*, Vol. 2, Rio de Janeiro: Contraponto.
- De Castro, E. V.(2015), *Metafísicas Canibais*, São Paulo: Cosac Naify.
- Fausto, B.(2006), *História do Brasil*, São Paulo: Edusp.
- Figueira, L.(1621), *Arte da língua brasílica*, Lisboa: Manuel da S. Menescal.
- Freire, J. R. B.(1991), *A Língua Geral Amazônica: aspectos de sua fonêmica*,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dade de Campinas(Unicamp).
- _____ (2003), *Da Língua Geral ao Português: para uma história dos usos sociais*

- das línguas na Amazônia*,” doctoral thesis, Universidade do Estado do Rio de Janeiro(UERJ).
- Freire, J. R. B. and L. C. Borges(2003), “Apresentação,” in J. R. B. Freire and M. C. Rosa(orgs.), *Línguas Gerais: Política linguística e Catequese na América do Sul no período colonial*, Rio de Janeiro: EdUERJ, pp. 7-10.
- Freire, J. R. B. and M. F. Malheiros(2020), “Os aldeamentos indígenas do Rio de Janeiro,” http://www.educacaopublica.rj.gov.br/biblioteca/historia/0039_10.html(검색일자: 2020.09.12.)
- Hemming, J.(2013), *Tree of Rivers: The Story of the Amazon*, trans. by Choi Pa-Il(Korean title: *Amazon*), Seoul: Mizibooks.
- Im, Doo Bin(2008), “Brasilui Eoneo Hyeonsilgwa Eoneo Sahoijeok Pyeongyeone Gwanhan Yeongu,” *Iberoamérica*, Vol. 10, No. 1, pp. 261-294.
- ISA, “Povos Indígenas no Brasil,” Museu da Língua Portuguesa, <https://img.socioambiental.org/v/publico/pibmirim/linguas/linguas-geraisOK.jpg.html>(검색일자: 2019.09.30.)
- Loukotka, Č. and J. Wilbert(1968), *Classification of South American Indian Languages*, Los Angeles: Latin American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 Mariani, B.(2017), *Colonização linguística e outros escritos*,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Inc.
- Nóbrega, M. da(1988), *Cartas do Brasil: 1549-1560*, Universidade de São Paulo(org.), Belo Horizonte/São Paulo: Edusp.
- Perrone-Moises, B.(1992), “Índios livres e índios escravos: os princípios da legislação indigenista do período colonial(seculos XVI a XVIII),” in M. C. da Cunha(org.), *História dos índios no Brasil*, São Paulo: Companhia das Letras/FAPESP, pp. 115-131.
- _____ (2012), “Tupi e tapuia,” posting of 26/03/2012 in the homepage of Laboratório de Ensino e Aprendizagem em História(LEAH), Instituto da História, Universidade Federal de Uberlândia, <http://www.leah.inhis.ufu.br/node/62>(검색일자: 2020.06.09.)
- Rajão, R. and S. Harding(2018), “Why ‘Tapuya?’,” *Tapuya: Latin Americ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Vol. 1, No. 1, pp. 87-91, DOI: 10.1080/25729861.2018.1539562
- Ribeiro, D.(1986), *Os índios e a civilização*, Rio de Janeiro: Petrópolis.
- Rodrigues, A. D.(1986), *Línguas brasileiras: para o conhecimento das línguas indígenas*, São Paulo: Loyola.
- _____ (1993), “Línguas indígenas: 500 anos de descobrimentos e perdas,” *D.E.L.T.A.*, Vol. 9, No. 1, pp. 81-103.
- _____ (1996), “As Línguas Gerais sul-americanas,” *Papia, Revista de Crionlos de Base Ibérica*, Vol. 4, No. 2, pp. 6-18.
- _____ (2000), “Panorama das línguas indígenas da Amazônia,” in F. Queixalós and Renault-Lescure(orgs.), *As línguas amazônicas hoje*, São Paulo:

IRD/ISA/MPEG, pp. 24-25.

Rodrigues, J. H.(1983), “A Vitória da Língua Portuguesa no Brasil Colonial,” *Humanidades*, Vol. 1, No. 4, Trimestral Publication of UNB, Brasília, pp. 21-41.

Rosa, M. C.(2003), “A língua mais geral do Brasil nos séculos XVI e XVII,” in J. R. B. Freire and M. C. Rosa(orgs.), *Línguas Gerais: Política Lingüística e Catequese na América do Sul no Período Colonial*, Rio de Janeiro: EdUERJ, pp. 133-146.

Línguas Gerais: Política Lingüística e Catequese na América do Sul no Período Colonial, Rio de Janeiro: EdUERJ.

Sweet, D.(1974), *A Rich Realm of Nature Destroyed: The Middle Amazon Valley, 1640-1750*,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Vieira, A.(2001). *Sermões*, Vol. 2., Alcir Pécora(org.), São Paulo: Hedra.

Yang, Eun-Mi(2014), “Brasilui Ijungeoneo Jeongchaek: Sikmin Sidae Amazon Gongtongeoneowa Gui Hyeondaejeok Buhwal,” Institution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atin Americaui Hyeongseong: Gyohwangya Hongjong(Ha)*, Seoul: Hanul Academy, pp. 351-375.

웹사이트

FOIRN(Federação das Organizações Indígenas do Rio Negro), <https://foirn.org.br/>
IBGE(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https://www.ibge.gov.br/>
ISA(Instituto Socioambiental), <https://www.socioambiental.org/pt-br>
<https://pin.it/fmpswHe>

Article Received: 2020. 09. 29
Revised: 2020. 10. 12
Accepted: 2020. 10. 16